

에서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야곱이 가로챈 축복의 내용이 곧 에서가 잃은 것들이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로 착각하고 야곱에게 한 축복은 다음과 같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 창세기 27:27-29**

밭, 곡식, 포도주는 땅에 관한 것이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축복은 듣는 사람 기분만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관한 예언이기도 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실제 효력은 에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이삭의 말을 보면 더 정확해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증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창 27:37**

야곱은 이삭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다. 에서는 울면서 다른 나머지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은 것이 없었다. 어차피 야곱에게 모든 것을 물려 주었으니 아우를 섬기면서 손에 쥔 칼 한 자루 믿고 사는 것이 에서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 창 27:39-40**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로 전달될 유산은 야곱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자신의 족보에 기록된 것 처럼 ‘자기의 것’을 이루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경솔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만회한 것처럼 보인다.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서가 끝내 회복하지 못한, 되찾지 못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 창 36:6**

에서는 가나안을 되찾기 보다는 떠나는 쪽을 택했다. 부유해진 형제가 한 지역에 동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에서는 가나안을 떠났다(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와 같은 이유였다). 에서가 먼저 일어났다. 야곱은 가나안에 남았고 에서가 먼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 창 36:7-8**

이렇게 에서는 가나안을 아주 떠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 아버지 이삭이 기근 중에도 떠나지 않았던 땅, 장자의 명분에 포함된 가장 큰 몫. 언약의 핵심인 가나안을 제 발로 떠났다. 가나안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언약의 무대를 떠난 것이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36장으로 끝난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을 떠났고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 창 37:1

-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